

밤

오양간 당나귀

아— ○ 앙 외마디 울음울고,

당나귀 소리에

으— 아 아 애기 소스라쳐깨고,

등잔에 불을 다오.

아버지는 당나귀에게

짚을 한키 담아주고,

어머니는 애기에게

젖을 한목음 먹히고,

밤은 다시 고요히 잠드오.

一九三七、三月、

밤

외양간 당나귀

아— ○ 앙 외마디 울음 울고,

당나귀 소리에

으—아 아 애기 소스라쳐 깨고,

등잔에 불을 다오.

아버지는 당나귀에게

짚을 한 키 담아주고,

어머니는 애기에게

젖을 한 모금 먹이고,

밤은 다시 고요히 잠드오.

1937. 3.